



3면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탈당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음 12월 2일) 제342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라산업의 미래 가치 모색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영 도지사 등 출장단이 10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미국 홈쇼핑월드 리크 김(Rick Kim) 대표와 100만불 규모의 전북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도내 우수 농수축산식품 미국 수출 판로 더 확장

전북도·미국 홈쇼핑월드, 100만불 규모 농수산물 수출입 협약 민선8기 한남체인·H마트에 이어 대규모 유통기업과 협약 잇따라

전북도가 도내산 우수 농수축산 식품들의 미국내 수출 판로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산업의 미래 가치 모색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영 도지사 등 출장단은 10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미국 홈쇼핑월드 리크 김(Rick Kim)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불 규모의 전북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발주로 10만8,000불의 주문이 곧바로 이어져 업무협약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미국 현지 유통업체인 한남체인과 H마트에 이어 세 번째로 맺은 업무협약으로, 미국 내 판로 개척을 위해 여러 현지업체와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홈쇼핑월드는 2007년에 설립돼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미 전역에 한국산 먹거리, 건강식품 등을 활발하게 유통하고 있는 업계의 우수한 기업으로 홈쇼핑 방송,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 매회 완판사세를 기록하는 유명 업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도와 홈쇼핑월드는 전북 농수산식품의 미국시장 유통, 판매사업 추진에 있어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가정에서 편리하게 전북지역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판매 확대 및 유

통망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박람회, 판촉행사 등 오프라인 위주의 홍보 방법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미국 홈쇼핑월드와 농수산물 수출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전북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외 거점 활용 마케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고창갯벌 중점 보존·활용 관리거점 조성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 확정 고창군, 국비 170억원 확보 행정절차 거쳐 2025년 착공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고창군은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예산 1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을 중점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는 관리 거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고창갯벌은 지난 2021년, 충남 서천 및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과 더불어 연속유산인 '한국의 갯벌'로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후 전남 신안에는 세계유산 보전본부 유치가 확정되고, 충남 서천 역시 지역센터 건립이 추진됐다. 하지만 고창갯벌을 보유한 전북권역에는 관리시설이 없어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에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고창군의 사업유치를 통해 연속유산 관리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창갯벌의 위상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은 올해 사전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조감도. (그라픽=고창군청 제공)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까지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고창갯벌의 보존 및 연구 등 유산 관리의 기능과 더불어, 갯벌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효과적으로 전시·체험·교육하는 등 유산관광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공간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갯벌 인근 지역주민의 참여와 교육을 통해 생태관광 인력을 양성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상생하는 체계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의 뛰어난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울러, 보존·관리 뿐만 아니라 갯벌과 지역문화가 결합된 생태관광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상해, 고창군 관광산업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총선 대비 부패행위 사전 차단

도 감사관실, 4월 9일까지 도·시군 합동감찰반 운영 선거철 분위기 편승한 공직비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전북도 감사관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 90일 전인 이달 11일부터 선거일 전 4월 9일까지 대대적으로 특별감찰에 나선다.
이번 감찰은 도·시·군 합동감찰반 30명을 투입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14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선거철 복무 위반 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관행적 업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업무처리 회피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직위 여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

용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공직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중 관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부패 없는 전북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직자들의 주의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작년 명절, 휴가철 및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감찰을 통해 55명을 대상으로 품위유지 위반 및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권 4대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

乘風破浪

탈승 바람풍 깎파 물결랑

“어떠한 난관이 가로막더라도 극복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가슴 벅찬 도전을 해나가겠습니다.”

2024

대시력은 김제 가슴 벅찬 도전

2024년 시정 역점시책

1. 지속가능 **산업성장도시**
2. 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
3. 대한민국 **첨단농업도시**
4. 준비하는 **항만해양도시**
5.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6.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7. 신뢰받는 **시민소통행정**

김제시